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356호 1판 (음력 9월 26일) 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2013년 5·18기념사 최순실이 수정 했나 10여 곳 차이점 발견

기념식 전날 최씨 PC 저장본 박근혜 대통령 낭독본과 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국립5·18 민주묘지에서 낭독한 5·18기념사와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 컴퓨터에 저장된 기념사 내용에서 차이점이 다수 확인되면서 5·18기념사 조차 비선 실세에 의한 연설문 수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5일 JTBC가 최씨의 컴퓨터(PC)에서 찾아내 공개한 '제3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를 박 대통령이 실제 기념식에서 낭독했던 기념사 전문과 비교한 결과 10여 곳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 PC에서 나온 기념사 중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아가 세계인들이 자유와 인권을 배우는 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은 박 대통령의 실제 기념사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또 '지역을 넘어,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의 상징으로 승화되고 있는'이라는 문장도 실제 낭독된 기념사에는 나오지 않는다.

PC에서 찾아낸 기념사 끝 부분 '저는 광주의 힘, 광주의 정신을 믿고'라는 표현과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화 시대를 선도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라는 문구도 실제 낭독된 기념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PC에서 나온 기념사 중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는 문구는 박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는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으로 표현돼 있다.

'저 역시 매번 5·18 국립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가족들과 광주의 아픔을 느낍니다'라는 표현은 박 대통령이 낭독한 기념사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최씨 컴퓨터에 저장된 기념사에는 담겨있지 않았다.

최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제3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는 기념식이 열리기 하루 전인 2013년 5월17일 저장됐다고 JTBC는 전했다.

이와 관련,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희생자와 이땅의 민주 열사들을 기리고 희생자 가족, 광주시민을 위로해야할 대통령 기념사가 일개 자연인인 최순실씨에게 발표 하루 전 전해진 행위 자체만으로도 용납받지 못할 행위"라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5·18 관련한 정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야 조금 이해되는 것 같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전 입찰조작 가능성 '시끌' ▶6면

전남대 총장선거 "내가 적임" ▶7면

재도약 꿈꾸는 KIA 손영민 ▶20면

무등산 자락에서 펼쳐지는 30일간의 문화 대잔치
2016 무등울림
2016.10.01.토 ~ 10.30.일
전통문화관&무등산권 운림동 일대
◆주말 | 전국국악대제전, 편백숲 힐링음악회 등
◆상시 | 의재다심, 보리밥 도시락, 한복마실 등
※ 축제기간(운림동 일대 커피숍, 음식점 등 상가 20여곳 할인)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062·232·1501
무등울림 사무국 062·232·1599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최순실 국정농단 어디까지…

'눈 감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연설문·각종 중요 자료 사전 열람 확인 게이트급 비화…검찰, '살아있는 권력' 수사 시험대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을 사전에 열람하고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중요 자료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박 대통령의 이날 사과에도 불구, 야당의 반발은 여전하고 그동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에 초점을 맞춰온 검찰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향후 정국이 어디로 흐를지 가늠할 수 없는 형국이 됐다.

JTBC는 지난 24일 최씨가 사무실을 비우면서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달라'며 두고 간 컴퓨터에서 44개의 박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 모두 200여 개의 파일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가 해당 파일을 받아본 시간은 박 대통령이 실제 연설을 하기 전이며, 공식 행사 연설문은 물론 국무회의 발언, 대선 유세문, 당시 대선후보 TV토론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른바 '통일대박론'의 실천방안을 담은 2014년 3월 독일 드렌스덴 연설문과 2012년 12월31일 공개된 박 대통령의 당선 첫 신년사는 외부 공개 하루 전에 최씨에게 전달됐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또 파일 중에는 지난 2013년 5·18 33주년 기념사도 나왔다. 이와 함께 2013년 8월5일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이 대거 교체되기 하루 전인 8월4일 작성된 '국무회의 말씀자료'도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이처럼 최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이미 '게이트급'으로 비화한 상황이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 앞에서 다시 시험대에 서게 됐다.

그동안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자금 유용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박 대통령이 제시한 '가인드라인'에 따라 좁은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문서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검찰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으나 시민단체까지 대통령 연설문 등을 사전 열람한 의혹을 받는 최씨와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관련자 전원을 형사 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를 확보해 안에 든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관련 파일을 분석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일부 연설 도움 받았다" 박대통령 대국민 사과

야 "진정성 없다"·여 "특검·탈당"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에게 각종 연설문과 발언 자료 등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직접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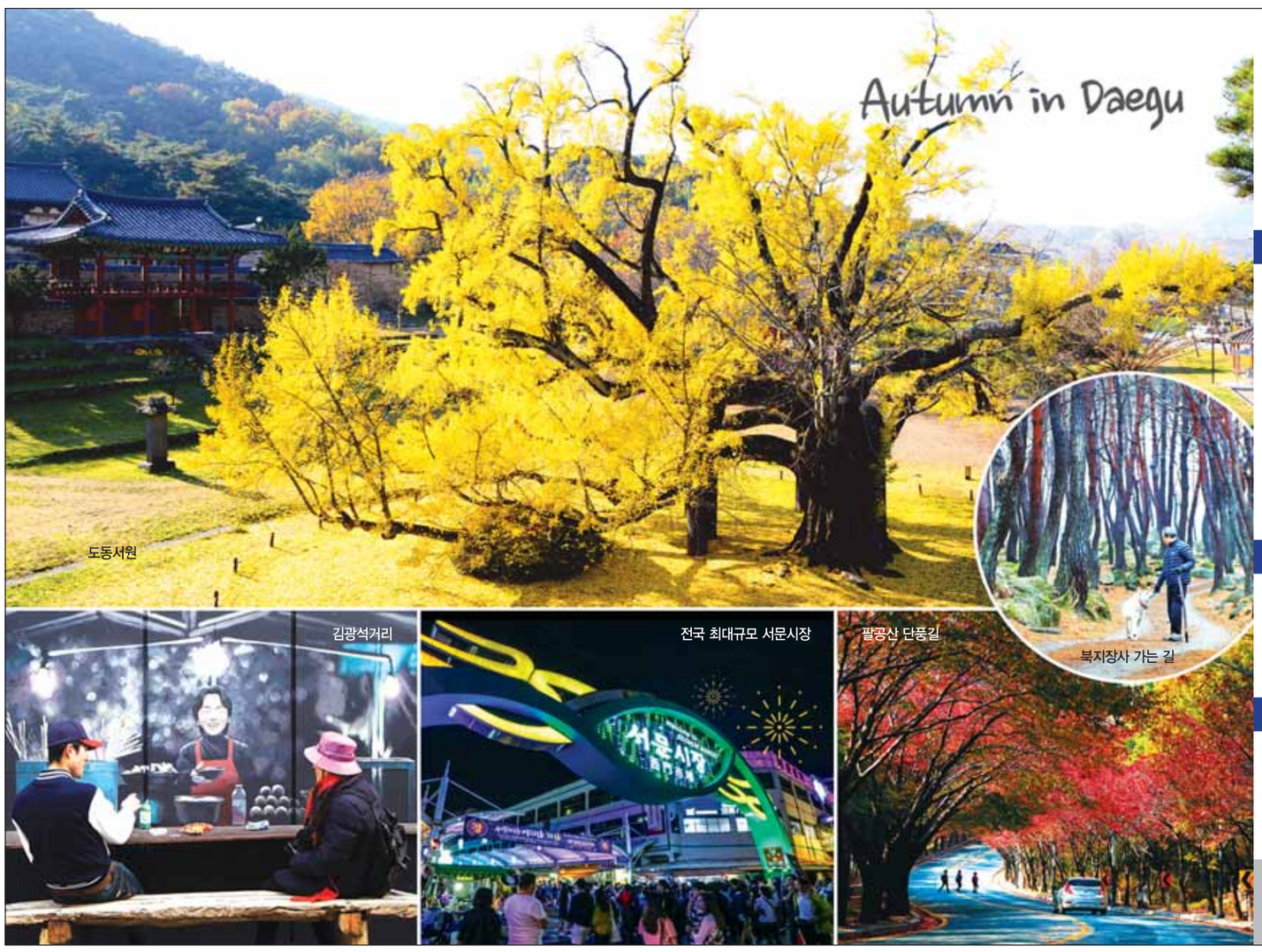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로부터) 지난 대선 기간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사전 전달 파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또 진상 규명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비박(비 박근혜) 진영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 주장이 이어지고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의 탈당까지 주장,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평가절하하고 철저한 수사 및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은 개인적인 일에 대한 감상적인 유감 표명에 그쳤다. 참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변명으로 일관, 국민이 과연 사과를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6 가을여행주간
상상속의 대구
특별 이벤트가 열리는 대구로 오세요!

01 여행주간 특별개방 관광지 스탬프 투어 '너에게만 보여줄게'

• 역사적 의미가 깊은 평소 개방되지 않은 관광지를 여행주간 동안 특별 개방합니다

특별개방	문화공연	공연일정	특별개방	문화공연	공연일정
★옻골마을 문중서적	고택음악회	10/29(17:00)	★인흥마을 인수문고	인문살롱	10/29(15:00)
구 제일교회 역사관	테라스콘서트	10/29, 11/5 (17:00)	청라언덕 선교박물관	세미클래식 콘서트	10/29, 11/5 (15:00)
★경북대학병원 의료박물관	–	–	수성못(유람선 야간운행)	가을밤 관혁악 공연	–
경상감영공원 (선화당/징청각)	퓨전국악공연	10/30, 11/6 (15:00)	계성중학교 아담스관	–	–

※ 인흥마을, 옻골마을, 경북대 의료박물관은 선착순 한정인원 관람으로 사전신청 필수 (대구관광협회 : 053-746-6407~9, 주말은 휴무)

02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대구로 힐링여행 떠나자 'Healing in Daegu'

도심권역(5개소)	김광석길, 서문시장★, 근대골목, 수성못★, 대구수목원	★야경
팔공권역(4개소)	동화사, 북지장사(방짜유기박물관), 불로동고분군, 옻골마을	
낙동비슬권(4개소)	사문진주막촌★, 인흥마을, 도동서원, 마비정벽화마을	

※ 추천 힐링관광지 방문하면 대구상징 기념품 증정

03 가을여행주간 광주시민을 위해 대구에서 준비한 특별 이벤트

– 광주→대구 방문 당일 영수증(열차, 시외/고속버스 등) 또는 '광대 고속도로' 휴게소에 비치된 스탬프 확인 후 5천원권 온누리상품권 받기
※ 상품권 증정 장소 : 서문시장 관광안내소, 김광석길 관광안내소
– 여자들만의 힐링여행(한복체험, 은반지 만들기 체험비 50% 지원) : 대구관광 블로그를 통한 사전 신청
– 대구 대표 음식테마거리와 시티투어 속 사과나무 찾고 대구 대표명품 기념품 받기

프로그램 상세내용은
대구관광 블로그 blog.naver.com/daeguvisit | 페이스북 www.facebook.com/daegutour | 홈페이지 tour.daegu.go.kr 참조